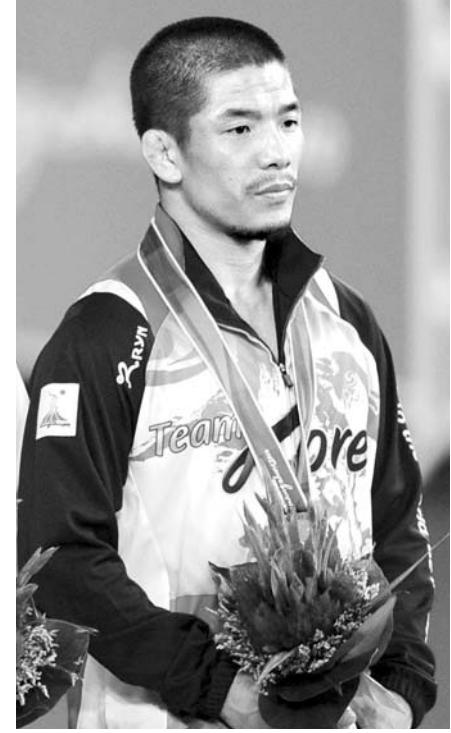




양궁 주현정



근대5종 이춘현



레슬링 김효섭

엘리트 체육의 메카 광주체고 출신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서 잇단 승전보를 알려왔다.

이번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는 11명의 선수와 6명의 지도자가 광주체고를 대표해 광저우 대장정에 올랐다.

가장 먼저 금메달 소식을 알려온 것은 막내 양학선이었다. 광주체고 3학년에 재학중인 그는 신예 양학선은 17일 광저우 아시안게임 타운 체육관에서 끝난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모두 16.400을 받으며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2위 평저(15.80점)를 무려 0.5점 차이로 따돌린 양학선은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학교 선배인 여홍철에 이어 14년 만에 제 2의 도마시대를 열었다.

고교 21년 선배인 여홍철 경희대 교수가 창조한 '여 2' 기술과 세 번을 비틀어 내리는 '트리플' 기술을 펼치는 양학선은 런던 올림픽 메달까지 겨냥하고 있다.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겨울 광주체고를 졸업한 김희훈과 박은경도 양학선과 함께 한국 기계체조를 대표하는 대들 보다. 김희훈은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격 김종현(25·창원시청)의 활약도 눈부셨다. 광주체고 26회 졸업생인 김종현은 이번 대회에서 두 개의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

메달을 각각 하나씩 목에 걸었다.

남자 50m 소총 3자세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가져간 김종현은 소총복사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역시 금메달과 동메달을 더했다.

'늦깎이 국가대표' 양궁의 주현정(29·현대모비스)도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쥐며

메달리스트 대열에 합류했다.

근데 5종 대표팀의 '맏형' 이춘현(30·한국토지주택공사)은 24일 단체전에서 김인홍, 허기현, 정현호를 이끌고 중국, 일본의 벽을 넘어 금메달을 사수했다.

광주체육중 입학 당시 수영을 했던 이춘현은 이후 종목을 넓히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맨'으로 거듭났다. 개인전에서는 은메

8m05를 뛴 중국 수시응원에게 뒤처져 2위에 머물렀지만 5차 시기에서 8m11을 날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갑작스런 근육 경련으로 현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던 김덕현은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고 승리를 예감하는 환호성을 내질렀다.

근육통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김덕현을 관중석에서 애�태하게 부르던 이도 역시 광주체고 출신의 김혁 코치다.

레슬링 여자 자유형 63kg급의 박상은(22·서울중구청)과 남자 자유형 55kg급의 김효섭(30·삼성생명)도 광주체고 출신. 김효섭은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수상 종목에서도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있다. 김휘관(20·한국체대)과 장강은(22·인제대)은 각각 더블스컬과 싱글스컬에 출전해 둘다 금메달을 끌었다. 김동용과 한 배를 탄 김휘관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외에도 역도 이형근 감독과 고광구 코치, 복싱 나동길 감독, 펜싱 김웅용 감독, 유도 남자 대표팀 정훈 감독도 역시 광주체고 출신이다.

광주체고 김광수 교장은 "광주체고의 자긍심과 애착을 가지고 눈부신 활약을 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목표, 꿈, 도전이 빛을 발해 전국 최고의 체육명문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학선·김종현·주현정·이춘현·김덕현...

각 종목에서 눈부신 활약 잇따른 승전보 지도자도 6명 참가 '광주체육의 힘' 과시

광주체고의 힘을 발휘했다.

주현정은 광주시청 소속의 신예 기보배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학습했던 윤숙희와 금빛 호흡을 과시하며 여자 양궁 단체전 4연패를 완성시켰다.

주현정은 중국과 연장까지 가는 접전 속에서 기보배, 윤숙희와 마지막 화살을 모두 곤두정가운데 쏘이어올리는 저력을 발휘하며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근대 5종의 이춘현도 광주체고의 금

달에 머물었지만 한국의 단체전 2회 연속 우승을 일구어냈다.

이춘현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24일 한국 도약종목의 지존 김덕현(25·광주시청)도 광저우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광주체고에서 본격적으로 도약종목에 발을 내디딘 김덕현은 이날 멀리뛰기 결선 1차 시기에 실패한 뒤 2차 시기에서 7m95를 기록했다.

3, 4차 시기까지 모두 실패했던 김덕현은

광주체고의 힘을 발휘했다.

주현정은 광주시청 소속의 신예 기보배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학습했던 윤숙희와 함께 한국 기계체조를 대표하는 대들 보다. 김희훈은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격 김종현(25·창원시청)의 활약도 눈부셨다. 광주체고 26회 졸업생인 김종현은 이번 대회에서 두 개의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

메달을 각각 하나씩 목에 걸었다.

남자 50m 소총 3자세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가져간 김종현은 소총복사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역시 금메달과 동메달을 더했다.

'늦깎이 국가대표' 양궁의 주현정(29·현대모비스)도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쥐며

메달리스트 대열에 합류했다.

근데 5종 대표팀의 '맏형' 이춘현(30·한국토지주택공사)은 24일 단체전에서 김인홍, 허기현, 정현호를 이끌고 중국, 일본의 벽을 넘어 금메달을 사수했다.

광주체육중 입학 당시 수영을 했던 이춘현은 이후 종목을 넓히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맨'으로 거듭났다. 개인전에서는 은메

8m05를 뛴 중국 수시응원에게 뒤처져 2위에 머물렀지만 5차 시기에서 8m11을 날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갑작스런 근육 경련으로 현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던 김덕현은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고 승리를 예감하는 환호성을 내질렀다.

근육통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김덕현을 관중석에서 애�태하게 부르던 이도 역시 광주체고 출신의 김혁 코치다.

레슬링 여자 자유형 63kg급의 박상은(22·서울중구청)과 남자 자유형 55kg급의 김효섭(30·삼성생명)도 광주체고 출신. 김효섭은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수상 종목에서도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있다. 김휘관(20·한국체대)과 장강은(22·인제대)은 각각 더블스컬과 싱글스컬에 출전해 둘다 금메달을 끌었다. 김동용과 한 배를 탄 김휘관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외에도 역도 이형근 감독과 고광구 코치, 복싱 나동길 감독, 펜싱 김웅용 감독, 유도 남자 대표팀 정훈 감독도 역시 광주체고 출신이다.

광주체고 김광수 교장은 "광주체고의 자긍심과 애착을 가지고 눈부신 활약을 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목표, 꿈, 도전이 빛을 발해 전국 최고의 체육명문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ri@kwangju.co.kr

광주체고의 힘을 발휘했다.

주현정은 광주시청 소속의 신예 기보배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학습했던 윤숙희와 함께 한국 기계체조를 대표하는 대들 보다. 김희훈은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격 김종현(25·창원시청)의 활약도 눈부셨다. 광주체고 26회 졸업생인 김종현은 이번 대회에서 두 개의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

메달을 각각 하나씩 목에 걸었다.

남자 50m 소총 3자세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가져간 김종현은 소총복사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역시 금메달과 동메달을 더했다.

'늦깎이 국가대표' 양궁의 주현정(29·현대모비스)도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쥐며

메달리스트 대열에 합류했다.

근데 5종 대표팀의 '맏형' 이춘현(30·한국토지주택공사)은 24일 단체전에서 김인홍, 허기현, 정현호를 이끌고 중국, 일본의 벽을 넘어 금메달을 사수했다.

광주체육중 입학 당시 수영을 했던 이춘현은 이후 종목을 넓히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맨'으로 거듭났다. 개인전에서는 은메

8m05를 뛴 중국 수시응원에게 뒤처져 2위에 머물렀지만 5차 시기에서 8m11을 날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갑작스런 근육 경련으로 현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던 김덕현은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고 승리를 예감하는 환호성을 내질렀다.

근육통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김덕현을 관중석에서 애�태하게 부르던 이도 역시 광주체고 출신의 김혁 코치다.

레슬링 여자 자유형 63kg급의 박상은(22·서울중구청)과 남자 자유형 55kg급의 김효섭(30·삼성생명)도 광주체고 출신. 김효섭은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수상 종목에서도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있다. 김휘관(20·한국체대)과 장강은(22·인제대)은 각각 더블스컬과 싱글스컬에 출전해 둘다 금메달을 끌었다. 김동용과 한 배를 탄 김휘관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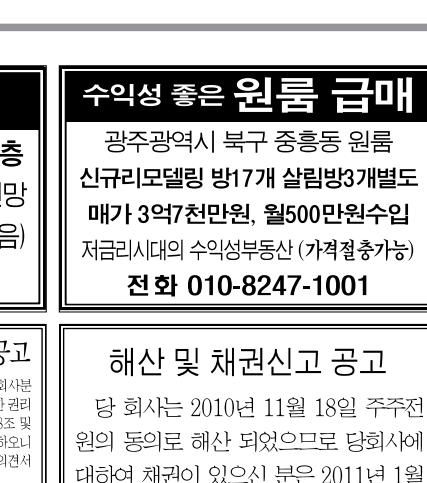
이외에도 역도 이형근 감독과 고광구 코치, 복싱 나동길 감독, 펜싱 김웅용 감독, 유도 남자 대표팀 정훈 감독도 역시 광주체고 출신이다.

광주체고 김광수 교장은 "광주체고의 자긍심과 애착을 가지고 눈부신 활약을 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목표, 꿈, 도전이 빛을 발해 전국 최고의 체육명문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ri@kwangju.co.kr



남자유도 정훈 감독



남자 양학선

광주체고의 힘을 발휘했다.

주현정은 광주시청 소속의 신예 기보배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학습했던 윤숙희와 함께 한국 기계체조를 대표하는 대들 보다. 김희훈은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격 김종현(25·창원시청)의 활약도 눈부셨다. 광주체고 26회 졸업생인 김종현은 이번 대회에서 두 개의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

메달을 각각 하나씩 목에 걸었다.

남자 50m 소총 3자세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가져간 김종현은 소총복사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역시 금메달과 동메달을 더했다.

'늦깎이 국가대표' 양궁의 주현정(29·현대모비스)도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쥐며

메달리스트 대열에 합류했다.

근데 5종 대표팀의 '맏형' 이춘현(30·한국토지주택공사)은 24일 단체전에서 김인홍, 허기현, 정현호를 이끌고 중국, 일본의 벽을 넘어 금메달을 사수했다.

광주체육중 입학 당시 수영을 했던 이춘현은 이후 종목을 넓히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맨'으로 거듭났다. 개인전에서는 은메

8m05를 뛴 중국 수시응원에게 뒤처져 2위에 머물렀지만 5차 시기에서 8m11을 날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갑작스런 근육 경련으로 현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던 김덕현은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고 승리를 예감하는 환호성을 내질렀다.

근육통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김덕현을 관중석에서 애�태하게 부르던 이도 역시 광주체고 출신의 김혁 코치다.

레슬링 여자 자유형 63kg급의 박상은(22·서울중구청)과 남자 자유형 55kg급의 김효섭(30·삼성생명)도 광주체고 출신. 김효섭은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수상 종목에서도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있다. 김휘관(20·한국체대)과 장강은(22·인제대)은 각각 더블스컬과 싱글스컬에 출전해 둘다 금메달을 끌었다. 김동용과 한 배를 탄 김휘관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외에도 역도 이형근 감독과 고광구 코치, 복싱 나동길 감독, 펜싱 김웅용 감독, 유도 남자 대표팀 정훈 감독도 역시 광주체고 출신이다.

광주체고 김광수 교장은 "광주체고의 자긍심과 애착을 가지고 눈부신 활약을 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목표, 꿈, 도전이 빛을 발해 전국 최고의 체육명문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ri@kwangju.co.kr

광주체고의 힘을 발휘했다.

주현정은 광주시청 소속의 신예 기보배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학습했던 윤숙희와 함께 한국 기계체조를 대표하는 대들 보다. 김희훈은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격 김종현(25·창원시청)의 활약도 눈부셨다. 광주체고 26회 졸업생